

홍천군의회 의장 당선 인터뷰

“7만 홍천군민과 소통하며 대의기관 역할 다하겠다”



공 군 오
홍천군의회 의장

1. 먼저 홍천군의회 의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대 홍천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 공군오입니다.

우선, 홍천군의회에 무한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천군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군민들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군민들을 대변하고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신뢰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후반기 의장단 운영 계획과 의장으로서 포부가 궁금합니다.

‘신뢰받는 의회,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외치며 시작한지 2년여가 흘렀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하나 되어 군민들과 소통하며 집행부와 의 합리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좀 더 발전적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을 이끌고 싶습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큰 과제 아래, 불필요한 당파적 분쟁은 배제한 채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도권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천~용문 간 철도 유치와 태학리 항공대 이전 등 홍천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홍천실버신문 구독자들과 홍천군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천군의회는 7만 홍천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며 군민 여러분을 위해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군의회 부의장 당선 인터뷰

“정파 초월 군정 제대로 감시 군민 신뢰 회복 최선”



박 영 록
홍천군의회 부의장

1. 홍천군의회 부의장 당선 축하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수 정당 소속의원으로서 부의장에 당선된 영광이나 기쁨도 크지만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저를 부의장에 당선시켜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홍천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부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 후반기 추진계획과 부의장으로서 포부가 궁금합니다.

나라 전체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홍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게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의회가 군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홍천 군정이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하면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소상공인이 주류를 이루는 홍천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정파를 떠나 의원 상호 간 유대를 강화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의회가 군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모습

을 보여드리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홍천실버신문 구독자들과 홍천군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천실버 신문을 구독하시는 독자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실 것입니다. 오늘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있게 노력해 주신 삶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 모두가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에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홍천군민들께서는 우리 고장이 청정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불안한 상태에서 위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홍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02 -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03 - 경로당 탐방시리즈

04 - 경로당 탐방시리즈, 스포츠
05 - 4차 산업혁명 시대
06 - 문화예술

07 - 우리 마을
08 - 인생칼럼
건강칼럼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홍천 물놀이장

연봉리 1만 3000㎡ 부지에 40억 투입 편의시설 갖춰



◇40억원이 투입된 홍천물놀이장이 지난 7월 홍천읍 연봉리에 1만 3000㎡로 조성돼 개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8월 23일(일)부터 잠정 폐쇄합니다.

유아풀, 어린이풀, 우수풀 설치 도내 물놀이장 최대 규모 군민 이용료 50% 할인, 전국 제일 '어린이 놀이터' 목표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지난 7월 21일 여름 건강놀이터인 '홍천 물놀이장(홍천읍 연봉 관터길 35)'을 생활체육공원 내에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물놀이장은 총 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돼 홍천읍 연봉리 1만 3,000㎡ 부지 내에 유아풀 1개소, 어린이풀 2개소, 우수풀 1개소 등으로 구성됐다.

유아풀은 654㎡ 규모로 유아용 워터 슬라이드와 반원터널분수, 미니 정글집 등 다양한 구성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공간이다.

또 어린이풀은 1,376㎡ 규모에 어린이용 버킷 워터플레이, 우산 조형 분수, 거북이·강거루 동물 조형 분수 등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해준다. 우수풀 또한 길이 154m로 운동 반경이 넓어 활동적인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의시설로 탈의실, 샤워실, 수유실, 튜브 바람 넣는 곳 등이 갖추어져 있고, 물놀이장 곳곳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 피크닉 테이블, 몽골텐트도 설치되어 있다.

매일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보조요원 12명을 추가 배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홍천 물놀이장의 이용요금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 모두 3,000원이 적용된다. 단 홍천군민은 50% 할인된 1,500원이며, 만 6세 이하 아동은 무료이다.

지역민 행복지수 상승

도내에서 도심 속 물놀이장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홍천 물놀이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확진자가 0명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시 운영되며, 입장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전자출입 명부(QR코드) 체크, 2m 생활 속 거리두기, 군민 신분증 확인 등 물놀이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개장 이후 이용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운영되며, 매시 45분 운영에 15분 휴식시간을 가져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끔 이용수칙을 철저히 하고 있다.

군은 여름철 물놀이장이 끝나면 겨울에는 썰매장 등 사계절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은 공공체육시설 휴관일과 동일하게 휴장에 들어간다.

올해는 장마가 유난히 길어서 운영기간을 9월 6일까지 연장하며, 장마 사이사이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어린이 건강놀이터 홍천’의 제1호 건강놀이터인 홍천 물놀이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어린이 건강놀이터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행 초기인 올해는 방문객들을 위한 먹거리 시설과 이용객이 몰릴 그늘막의 부족, 수영장 계단의

물놀이장 이용 시 알아두면 편리한 점

1. 음식물, 주류 반입금지이나 생수는 반입 가능
2. 홍천 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등본을 준비
3. 설치된 그늘막의 한정 수량으로 개인 그늘막이나 원터치 텐트를 준비해가면 편리
4. 5시45분이 종료 시간이므로 샤워 및 부대시설을 미리 사용
5. 별도의 매점이 없음을 사전 인지

미끄럼 방지 시설 등 보완해야 될 부분이 눈에 띄었다.

또한 모자와 수영복, 구명조끼의 필수 착용으로 수영장 수질관리에 좀 더 효과를 높여 주길 바란다.

코로나 19로 인한 1일 입장객을 500명으로 한정에 따라 대기를 하는 이용객이 불편을 겪기도 했으나, 주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으로 물놀이장의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건강놀이터 홍천’의 군정 비전으로 제시한 ‘홍천 물놀이장’은 구상·설계단계부터 어린 자녀를 둔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차례 의견을 듣고 반영돼 완공된 시설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주민자치의 롤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만족하는 물놀이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하경 기자(jok9621@daum.net)



경로당 탐방시리즈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안정적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인 경제적 자립 돕는다



◇홍천군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박흥순 센터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직원들.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1·2사무실

공익 사업 탈피 시장형·특화형 사업 중점 전개 계획 업무 연속성, 창의성 위해 전담 직원 처우 개선 필요

홍천군의 노인일자리 총괄하는 전담센터로 출범

중복이 지나 여름의 중반이 넘어가는 7월 말에 방문한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는 전체 인원이 찰옥수수 사업단의 옥수수 수확 일손 돕기에 출동하고 박흥순 센터장만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는 홍천군의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 확대, 사업의 양분화로 전문적인 케어 부족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홍천군의 노인 일자리를 총괄하는 혼합직영 전담센터로 2019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전국 최고의 시장형 사업, 특화사업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장을 비롯하여 팀장 4명과 전담관리사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 25명 등 총 30명이 홍천군의 일자리 예산 약 140억 원을 집행 및 관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규모를 보면 시장형에 연인원 110명이 참가하여 3억 원, 노노케어에 260명이 참가하여 8억 7천만 원, 사회서비스형에 100명이 참가하여 7억 9천만 원, 공익형에 3,182명이 참가하여 114억 원 등의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박흥순 센터장이 역점을 두고 전개하는 시장형 및 특화사업은 찰옥수수 사업단이 4개소에 65명이 참가하고, 축제 등 사업단은 1개소 11명, 콩 재배 사업단은 1개소에 10명, 카페 및 만두 사업단 2개소에 1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2019년 사

업 진행 결과는 약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올해 수익목표를 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에서는 공익형 사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노인일자리의 자립의 토대가 되는 시장형 및 특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청년창업과 연계하는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자립형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현재 홍천군이 국내 선두주자이기에 나름대로 자긍심도 가지고 있단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추진현황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센터에서는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 전체 인원에게 마스크 5,000장 및 대용량 손세정제 500개, 휴대용 손세정제 1,000개를 전달했으며 10개 읍·면 각 분 회장에게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수칙 공문을 3회에 걸쳐 발송해 주의를 환기시켰고, 외부 환경정화 활동하는 날을 이원화 하여 월·수·금/화·목·토로 분산해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감염 예방과 관련하여 신고 접수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10개 읍면 각 경로당의 정문에 외부인 접근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등의 소비여력 강화를 위해 9개 면의 각, 경로당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여 참여

한 어르신들에게 상품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활동 비중 30%를 상품권 수령 시 59,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4개월간 진행하고 있다.

전담센터를 이끌고 있는 박흥순 센터장은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초대 센터장으로서의 막중한 사명감과 비록 센터는 설립된 지가 1년여밖에 안되지만 예비역 소령 예편 후 홍천군 노인회 노인취업 센터장의 임무를 5년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지역과 연계한 특화형사업, 시장형사업, 청년과 연계한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확대하여 연령별에 의한 일자리를 제공하려 하며, 노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소득보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전담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창의성, 연속성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

앞으로 홍천군 일자리 전담 센터가 지금보다 더 내실 있고 창의성과 책임감,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운영되게 하려면 현재 계약직인 전담직원들에게 현실성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인원에게 대한 일괄적인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매년 업무 성과에 따른 평가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소속감과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것과 전문적인 업무의 연속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경로당 탐방시리즈

홍천읍 신장대3리 경로당(2019년 7월호 후속)

우수 경로당 선정 숙원사업도 완료 기쁨 두배



◇상장을 펼쳐 보이는 전창수 회장(오른쪽 이근환 사무장).

2019년 7월호에 탐방기사가 게재된 홍천읍 신장대 3리 경로당(회장 전창수)이 지난 7월 24일 대한노인

회 홍천군 지회(지회장 이형주)로부터 2019년 주요 업무실적 평가에서 우수경로당으로 선정되어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1년 전 본지 기자가 신장대 3리 경로당을 탐방할 당시 숙원사업으로 경로당 앞의 건물로 인하여 경관, 일조권 침해는 물론 주차장이 없어 불편하고 강변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가 예상된다고 애로 사항을 회원들이 말씀해 기사화한 바 있다.

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즐거운 마음으로 신장대 3리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 작년 방문 시 경로당 앞을 가리던 건물이 철거되어 아스팔트 포장되어 주차장으로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그동안 전창수 회장과 이근환 사무장이 홍천군에 건의하고 경로당 회원들의 협조를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로당 앞을 가리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해 쾌적한 환경과 교통사고 방지로 회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성과물을 볼 수 있어 후속 기사를 위해 방문한 기자도 매우 즐거운 마음이 될 수 있었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스포츠

홍천군 생활체육 '파크골프'

2013년 첫 출발... 강사, 심판진 탄탄 누구나 입문 가능

홍천군 파크골프는 2013년 초대회장(이춘성)이 2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팔봉산 파크클럽 회원 20여 명과 정회원 70여 명이 홍천 파크클럽을 애용하고 있으며 체육인의 한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지금은 2대 회장(최철수)과 전무이사(홍원섭), 총무(정연희)가 현재 파크골프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특히 홍천 파크골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실력 있는 강사진과 교육이사 심판진을 잘 갖추고 있어 초보 회원들에게도 기본자세를 잘 익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좋은 운동의 시초가 아닌가 한다.



◇홍천군 파크골프는 2013년 20여명의 회원으로 시작되었다. 회원들이 강사들의 도움으로 파크골프를 배우고 있다.

파크골프는 생활체육으로 함께 해야

파크골프는 3-4명이 한 조가 되어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한 가족이 또는 친목을 함께 하며 서로의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만끽하며 각자 좋은 정보도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생활체육으로서 국민에게 건강하게 해주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비용도 저렴하고 기본적인 채와 볼 그리고 간편한 운동 복장으로 노인 어른 아이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다른 운동도 그러하듯이 파크골프는 기본자세

와 기본기가 최우선 되어야 장타도 칠 수 있고 각 홀마다 파도 할 수 있는 파크골프의 묘미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파크골프는 전국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양산시에서는 유료화로서 양산시민은 한번 치는데 2,000원을 외지인은 5,000원을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50% 할인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협화음으로 계속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의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시설도 관리해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감안하면 유료화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도 본다.

홍천 파크골프에서는 2019년 강원도 파크골프 어르신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18개 시·군 70세 이상이 참여한 대회에서 홍천군이 1등을 하여 많은 찬사와 박수를 받았다.

홍천 파크골프에서는 2020년 10월 중순경 회장배를 앞두고 있으며, 파크골프에 관심있는 분들은 전무이사(홍원섭)에게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전무이사 홍원섭
(010-8918-0367)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과 친해지기,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화 이후 세대에게는 친근한 디지털이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의 고령층에게는 여전히 아날로그 문화가 친숙하며, 1년이 멀다하고 빠른 속도로 바뀌는 디지털 환경이 친숙해지지 않고, 익숙하지도 않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환경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환경 변화를 손 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다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디지털 환경과 친해지는 것은 어떨까.

교통 이용의 편리함

서울역 매표소에 표를 사기 위해 줄은 선 대부분은 5~60대의 중장년층이다. 60대 중반의 한 손님이 부산 가는 표를 달라고 하니 매표소 직원이 “케이티엑스(KTX)로 가실 거죠? 그 시간대는 표가 매진됐는데요. 다음부터는 코레일톡 앱으로 예약하세요.”라고 한다. 손님은 “그거 할 줄 모르는데...”, “자녀분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이런 장면은 서울역뿐만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매표창구에서도 수시로 목격되는 광경이다. 스마트폰의 간단한 앱 기능만 알아도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설 필요도 없을 뿐더러 편한 시간대, 편한 자리를 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이를 이용할 줄 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어느새 ‘디지털 소외계층’이 되어 버렸다.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 티머니’라는 앱을 이용하면 좋고, 기차를 이용한다면 위의 ‘코레일톡’을 사용하면 된다. 또한 교통량이 뜸한 외진 곳이나 택시가 자주 다니지 않는 곳에 있다면 난감한 경우가 있다. 이때는 ‘카카오 T’와 같은 앱이 아주 유용하다. 이러한 앱 기능을 한 번만 익혀두면 이와 유사한 다른 앱 기능도 쉽게 익힐 수 있다. 사실 디지털 기기의 거부감이 중장년층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앱 사용법 익히기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

금융 혜택을 받다

요즘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용객 중 대부분도 역시 5~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다. 간단한 금융 관련 앱의 사용으로 24시간 금융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 창구에서 직접 볼 일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서울역 매표소 상황과 비슷하다.

심지어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는 기존의 은행의 개념을 뒤집는 혁신적인 은행들이다. 비대면의 계좌 개설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의 혜택, 이율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기존의 은행



들도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

각 금융권의 이용 가능한 앱을 설치한다면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모든 금융 업무를 재택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앱 사용 능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은 알게 모르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게다가 금전적 손해까지 입고 있는 실정이다.

각 시중 은행들은 창구 대신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예·적금 이율을 높여주거나 대출이자를 다소 싸게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주 고객에게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다. 금융 앱 이용은 편할뿐더러 금전적 이익까지 받으니 이는 사실 비대면 디지털 환경을 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금융 앱 역시 간단한 사용법만 익히면 이와 관련된 각종 금융 관련 앱 기능을 익히는데 무리가 없다.

편해진 쇼핑

각종 오프라인 유통점들은 올해 특히 위기를 맞았다. 코로나 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Offline) 판매 방식은 이제 유효기간이 다한 셈이다. 즉 미국의 ‘아마존’ 같은 온라인 판매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2분기 신선식품 부문의 온라인 매출은 전년보다 207.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와 판매 방식은 이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오포오(O4O·Online for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하며 젊은 층 못지않게 중장년층도 끌어들이고 있다. 일례로, 식품 판매부에서 시범 도입한 간편

장보기 서비스 ‘스마트 코너’는 올 2분기 약 30% 가량 이용 고객이 늘었고 쌀, 생수 등 무거운 품목을 카트에 담을 필요 없이 스마트 코너에 있는 바코드만 건네면 계산대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결제한 품목은 신세계백화점의 근거리 배송 서비스로 가져다주거나 주차된 차량에 직접 실어준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자체의 판매 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저렴하게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 관련 앱의 사용법들도 대개 비슷비슷하여 한 가지 앱의 기능만 숙지한다면 역시 내 손 안의 장보기 스마트 앱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줄 알면 조금 더 편했다. 이제는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활용할 줄 모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완전히 소외된다. 차별을 받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받으며, 취업기회도 줄어든다.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이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이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못한 중장년층에게는 다소 충격적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각 지역에 ‘디지털 역량센터’를 세워 주민들이 각종 디지털기기 및 서비스 활용법을 익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참고: 한겨레(2020. 7. 6)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순간의 아름다움 포착 영원히 간직한다



◇제8회 홍천연합사진전이 지난 7월 29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했다.

군민의 날 기념 사진협회, 사진동우회 회원 작품 전시 ‘빛의 예술’ 사진은 세상 기록하고 공유하는 예술 세계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8회 홍천연합사진전을 찾았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전시되고 있었다. 마침 8월 1일 군민의 날을 기해 많은 사람이 관람하고 있었다. 나도 사람들 틈에 끼어 아름다운 사진예술을 감상할 기회를 가졌다. 사진예술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셔터만 누르면 되는 사진이 전부라고 알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진예술의 미학을 모르고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진예술의 전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순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심오한 미학의 장르라는데 매력을 느꼈다.

이번 사진전은 사진협회와 사진동우회의 연합 전으로 개최하기 위해 물심양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차제철 지부장의 인사말을 인용해 본다. 사진예술은 세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작품마다 사진작가의 언어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비움과 채움의 창의적인 고단함을 넘어 공간과 색의 아름다움을 함축한 이야기라는 나름의 예술론을 피력했다. 덧붙여 홍천 사진인 들이 오랜만에 함께한 연합 사진전이기 더욱더 뜻깊게 생각하며 홍천 사진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사진예술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덧붙여 본다.

촬영은 곧 표현이다.

표현이란 자신을 표현한다는 뜻이다. 내가 촬영하고 싶어 하는 상관을 표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다. 내가 이것이다, 라고 느낀 그 순간에 찍어야 그 정서가 표현된다. 촬영할 때 전광석화

처럼 찰나의 순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프레임(framing) 찍고자 하는 대상을 파인더를 통해 심층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사진작가의 이미지 형성 작업 및 작가의 정체성이나 생각이 잘 표현된다.

사진과 구도의 다른 점은 사진과 회화는 다른 차원의 예술이다. 사진은 프레임이고 그림은 작가가 발견한 진실을 선별적으로 화면 형성 방법이다.

구도가 현실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백지 위에 필요한 대상을 정리 필요한 부분을 따내는 방법이다. 사진과 그림은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진과 구도

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지 구도가 아니다. 구도는 내용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 훌륭한 구도란 사물을 올바르게 파악하려는 방법이다. 좋은 사진을 많이 보고 많이 찍다 보면 거기에 구도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사진과 빛

사진은 빛의 예술이다. 빛은 시간과 함께 사진의 기본 요소라고 본다. 시간이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빛은 사진의 형상을 완성하는 빛 자체가 영상이요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빛이 없는 사진은 상상할 수 없다. 빛은 촬영의 수단이자 빛은 사진의 형태를 빚어내는 재질이다. 빛이야말로 사진의 본질이다. 사진의 예술성이나 완성은 빛을 만나 가능하고 완성이 된다. 사진은 빛으로 빛는 예술이기 때문에 사진가는 빛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촬영 수단

빛은 촬영 수단이자 시간의 형태를 빚어내는 재질이다. 빛을 다루려면 우선 빛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빛이 촬영 수단이란 말은 곧 사진의 표현 수단이란 말이 된다. 작가의 의도 곧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빛을 잘 알아야 한다. 빛을 다루려면 빛을 읽을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야 한다. 물체에 비춘 빛의 형태와 성질을 파악하고 빛을 활용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광선의 방향과 강약은 빛의 예술의 기본이다. 그리고 물체에 비친 빛의 표정을 읽어야 한다. 빛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다. 자연광 그리고 인공광도 있다. 좋은 사진 제대로 된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술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 나가야 한다. 사물을 영상으로 바꾸어 볼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사진적 시각이란 현실을 사진 영상으로 번역해 낼 수 있는 심미안을 말한다.

정지된 움직임

움직임의 상징화 방법은 움직임의 어느 한 순간을 고정함으로써 찰나의 순간을 자신이 원하는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한다. 누구나 디지털 시대에 사진은 일상화되어 있다. 자신이 원하는 때와 장소와 순간을 의미 있는 내용으로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을 때 사진술을 익혀 발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프로는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좋은 추억이 될 만한 장면이나 보존될 가치나 내용을 공유한다면 보다 폭넓은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사진이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 자신의 취향을 넓혀 사진술을 익히는 것도 삶의 외연을 넓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사진예술이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채색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참고·한정식 著 사진예술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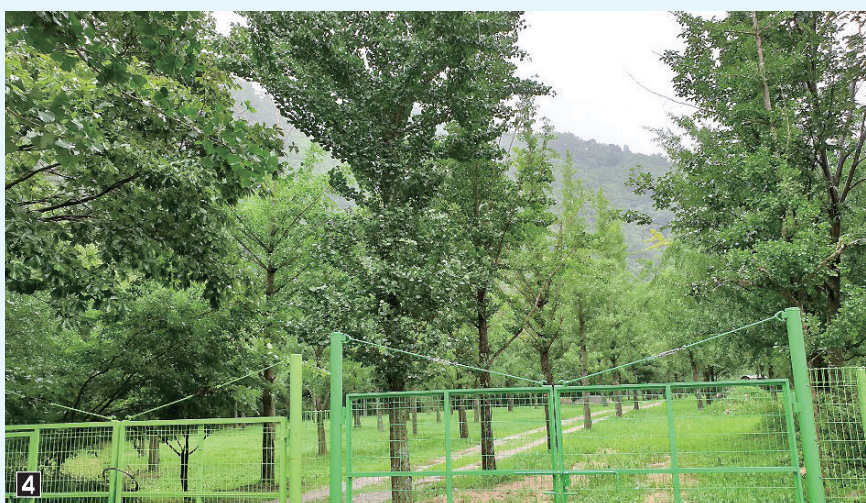
김정현 기자(kjh8639@hanmail.net)



우리 마을

홍천군 내면

백두대간 첫 마을... 고랭지 채소 전국적인 유명세



- 1 고랭지 농작물
- 2 내면 소재 계곡
- 3 삼봉약수
- 4 은행나무 숲

해발 600m 위치 3,200여명 거주하는 산간 마을 100대 명산 계방산, 삼봉약수 은행나무 숲 인기

홍천군 내면은 해발 600m 고지대에 위치하며 홍천군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산간마을이다.

법정 6개리와 행정 17개리 63반 자연마을 62개이다. 국도 31호선과 56호선이 교차하며 지방도 21.5km이다. 인구는 3,219(남 1,717, 여 1,502) 명이며 주소득원은 고랭지 채소, 배추, 무 고추, 감자, 양파, 오이, 알배기, 호박, 상추, 약초 등이다.

내면 홍천의 9경 중 9경에 속한 삼봉약수는 가칠봉, 사삼봉, 응봉산의 세 봉우리 중 가운데에 위치한다 하여 삼봉약수라 불린다. 조선시대에는 '실론약수(實論藥水)'라 불렸다. 약수의 효능은 철이온, 탄산이온, 다이탄산이온 등 15가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 당뇨, 위장병, 피부병, 신장병 등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주변 삼림이 울창하고 수려하여 관광코스로 이용되며 요양지로도 적합해 장기체류자들을 위한 산장도 마련되어 있다. 1992년 산림청에서 이 일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였다.

은행나무숲은 내면 광원리 686-4번지 일대 4만여㎡ 부지에 5m 간격으로 200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심겨 있는 곳이다. 이 숲의 주인은 유기춘 씨로서

부인의 만성 소화불량 치료차 삼봉약수터에 들르다 자연에 흠뻑 빠져 이 일대 땅을 매입한 뒤 4-5년생 은행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한다. 25년간 문을 닫고 있던 이곳이 이제는 매년 10월에만 문을 열어 비밀스러운 가을의 명소로서의 매력을 발산한다.

살둔 계곡은 원시의 비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입구부터 하늘을 가린 원시림에 둘러싸여 있는 별천지다. 일명 생둔(生屯)이라고 하면 삼둔이라고 한다. 살둔 계곡에는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와 어름치가 서식하는 1 급수이다. 봄에는 기암괴석과 철쭉과의 조화로 경관이 수려하다.

가칠봉(1,240m)은 홍천군 내면 광원리와 인제군 기린면을 경계로 하는 산으로 「홍천 너브내의 숨결」에는 "산에 봉우리가 일곱 개로 이루어져 있어 가칠봉이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백두대간 갈전곡봉에서 남서로 뻗은 능선상 2.5km지점의 첫 번째 봉으로 태고의 원시림 속에 숨겨진 오지의 산이다. 활엽수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갈전곡봉-가칠봉-삼봉약수로 이어지는 산행코스를 산악회 회원들이 많이 찾고 있다.

계방산은 한국이 100대 명산에 선정된 산으로 백

두대간 제26구간 두로봉에서 오대산을 거쳐 한강변까지 뻗어 내린 한강의 맥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 설악산(1,708m), 덕유산(1,614m)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산이며 백두대간의 등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이다.

자동차로 넘나드는 고개 중 제일 높다 하는 운두령(1,089m)에서 시작하게 되므로 높은 산이지만 전국 고랭지 채소 유통팀장 김학진 씨는 7월~10월까지 운두령 채소를 전국(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부산, 대구, 대전)에 출하한다고 한다.

백두대간 첫 마을 홍천 내면은 가칠봉, 계방산, 응봉산 등 유명한 산림이 많아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유일하게 한 곳 밖에 없는 극빈장 여관은 선풍기가 있으나 손님들이 거의 가동하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다고 한다. 겨울에는 온방 장치만 하고 눈이 많고 설경을 좋아하는 등산객이 많이 찾는 마을이라고 한다.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홍천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소노벨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팔봉산, 계방산, 응봉산 등으로 자연을 찾아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많이 찾아온다.

이광명 기자
(shout1700@hanmail.net)



인생칼럼**석도익**

소설가

바다가 삼면에 접해 있는 한반도는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다. 하지만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백두대간이 뻗어내려 대관령, 한계령, 구룡령, 미시령, 진부령이 굽이굽이 이어진령 너머에 있는 영서지방에서는 지난날에는 싱싱한 바다생선을 맛보기란 어렵었다.

지금은 그 흔한 소금도 지난날에는 국가산업으로 전매품이었으니 오죽했으랴. 생선이라야 소금에 절인 자반고등어나 겨울철에 동태가 고작이었으며, 마른 북어나 코다리 양말이 오징어 따위고, 소금에 뒤영킨 것갈 종류가 겨우였는데 그것도 바다에서 령 넘어 이곳까지 오는데는 많은 시일이 걸려서야 행상으로 판매되고 시골 닻새장날 장돌뱅이에 의해 소리치며 판매되곤 했을 뿐이다.

집안의 제사가 있는 날 자반고등어나 조기는 소금에 절여 노란빛이 나는 놈 한 손 사다 물에 우려내고 구워도 소금기가 겉으로 덕지덕지 피어나 아무리 맛있어도 많이 먹을 수 없어 고등어 한 손이 대가족이 맛보고도 남을 지경으로 짜고 오래되어 쿵쿵한 냄새가 나지만 왜 그리도 꿀맛이었는지 오랜만에 먹어보는 쌀밥에 정신없이 먹고 나면 짜게 먹은 탓으로 밤새 물을 들이켜 어머니가 물 길러 다니는 물동이처럼 불어난 배를 자랑하며 자란 유년시절의 추억이 아련하다.

했는지 모르지만 바닷물에 무한하게 있는 것이 소금이라 그 귀중함을 느끼지 못한다.

지난날 지금의 상업에 시조가 되는데, 지게지고 다닌 소금장사가 동네마다 무수한 염문을 뿌려놓아 전해 내려오는 옛날이야기에 주인공인 귀한 물건이기도 하다.

모조품의 빼닮음이 진품을 능가하고 거짓이 진실을 사기 치는 세상에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간 못하게 뒤범벅이 되어 버렸어도 소금만은 아직까지 가짜가 나오지 않은 것은 소금이 흔하고 싸기

“정말이지? 진짜야?”

언젠가 고추가격이 천정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식당에서는 “이거 가짜 고추가루 아닙니까?” 하고 농담 반진담 반 한 마디 묻고 넣어 먹어야 하던 때도 있었다.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들을 말 하나 없다는 불신의 시대, 그래도 거짓말을 잘해서 그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많다.

사람의 장기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준다고 화장실 벽마다 덕지덕지 붙어있으니 오래지 않아 자신의 어느 신체부위가 신통치 못하다 싶으면 다른 것으로 사다 맞추고 살 수 있는 세상이며, 밤하늘에 별도 달도 만들어 달아놓고 즐길 것이리라 생각하니 섬뜩하다.

마시면 취하는 정직한 술을 취하지 않게 많이 먹는 것을 자랑으로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고추는 매운맛으로 먹는 것인데 맵지 않은 고추를 찾아다니는 주부는 있어도 짜지 않은 소금어디 없느냐? 고 찾는 사람은 아직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 소금이야말로 사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한다.

소금은 물과 함께 영원히 한 줌 늘지도 한 줌 줄지도 않고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바다와 육지를 윤회하며 원하는 생물에겐 생명에 필수로 그 짠맛의 진실을 이어갈 것이다.

소금은 진(眞)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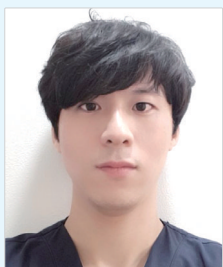
이렇게 짠 음식을 먹고 자란 터라 성인병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짜고 매운 음식섭취가 안 좋으니 싱겁게 먹으라고 하지만 어려서부터 젖어온 식성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소금이란 짠 맛을 내는 무색의 천연 광물성 식품으로 염소와 나트륨의 결정성물로 조미료와 방부제로 식염으로 쓰이는데 우리 생활에서 먹는 것 이외에도 의약품에도 염색에 냄새 제거에 살충제 살균제까지 이용되어 단 하루라도 소금이 없이 살기 힘든 소중한 것이라 “금”이라

때문만은 아닌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소금은 진실만을 간직한 진품인 것이다.

어느 기름집에 “진짜 참기름 팝니다.”라고 간판 다음으로 크게 써 붙여 놓은 웃지 못할 풍경에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

우리말에 “참”이란 진실. 진짜라는 것이거늘 참기름이 가짜가 범람하니 진짜라는 말까지 그 앞에 붙여 써야 하는 진짜 참기름 가짜 참기름 구별을 하는 공부를 또 해야 하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음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건강칼럼**김홍일**

삼성마취통증의학과의원 과장

사람의 발은 26개의 뼈와 32개의 근육과 힘줄, 그리고 107개의 인대가 얹혀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체중의 1.5배 해당하는 무게가 발에 가해지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5,000~8,000번의 걸음을 걷는다고 합니다.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 보내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신체가 ‘발’입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으로 발에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인 ‘무지외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무지)이 두 번째 발가

락 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증상으로, 엄지발가락 관절이 안쪽으로 돌출된 상태로, 진행 정도에 따라 염증으로 인한 통증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신발을 신고 서 있거나 걸을 때 자극을 받아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 발바닥에도 굳은살을 만들고 신경을 망치게 해 발바닥 앞쪽 부위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젊은 여성의 30~40%가 무지외반증에 해당하나, 대개 질환 자체보다는 발가락 통증과 발 굳은살로 병원을

때 발 앞쪽으로 모든 힘이 쏠리는데, 그것을 발가락이랑 발 허리뼈가 온전히 받게 되면서 발가락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생활 습관의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죠.

무지외반증은 20대, 30대에는 자주 힘을 신고 다녀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50대에는 변화가 확 느껴지게 되며, 이미 변형이 왔을 때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보조기로는 휘어진 뼈를 되돌리기가

무지외반증 원인과 예방

찾았다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지외반증의 발생 원인으로는 우선 유전적인 요인이 큼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15배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관절이 더 유연하기 때문인데 이 유연성 때문에 관절의 변형이 더 쉽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발 및 아킬레스건의 구축으로 인해 발생해도 하지만 대부분 여성의 경우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이힐을 자주 신었을 경우입니다. 하이힐을 신었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외반증이라고 해서, 발가락이 많이 굽었다고 해서 무조건 통증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X-ray 상 변형이 심하고 남들이 봤을 때 발가락 모양이 많이 휘어 있어도 스스로가 아프지 않고 잘 지내면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가 존재하는데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100가지가 넘는 방법이 있을 정도로 환자에 따른 맞춤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만큼 사람마다 변형된 발가락의 모양이 다르고, 각도와 원인까지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존적 치료로는 약물치료로 통증을 경감시키는 방법과 보조기를 이용하여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교정기를 넣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기는 발가락이 겹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증상을 덜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뼈 교정의 효과는 없어 휘어진 발가락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은 어쩔 수가 없지만, 무지외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볼 좁은 신발을 신지 않고, 뒷굽이 높은 것도 신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림과 같이 발아래에 수건을 깔고 발가락으로 쥐었다 폈다 하면서 수건을 끌고 오는 동작을 자주 해주시면 휘어져 있는 발가락에 움직임을 주어 더 이상 변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